비로자나국제선원, 10월 30일 창립 10주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기념법회 및 음악회 열어

비로자나국제선원(주지 자우)은 10월 30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창립 10주년 기념법회 및 건립기원 음악회'를 봉행한다.

이번 음악회는 비로자나국제선원의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바탕으로 선원 이전 건립을 기원하는 자리다. 음악회에는 LMB싱어즈 중창단과 연합합창단(우빼까 · 국제포교사 · 불교여성개발원 합창단)이 출연하며, 선무도 시연 등 10주년을 빛낼 다채로운 공연이 열린다.

특히 빌보드 클래식차트 1위, 아이튠즈 클래식차트 1위를 기록한 바 있는 임현정 피아니스트가 특별출연한다.

비로자나국제선원은 '청정한 불성의 회복과 불교의 세계화'를 창건 이념으로 2006년 개원했다. 영어담마스쿨, 영어담마캠프, 일요 참선법회 등 참선과 영어를 통한 전법으로 외국인 및 어린이 · 청소년들의 불교적 인성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02)6012-1731 **윤호섭 기자**

문화사업단, 中에 韓불교 홍보 박차

관음성지 마케팅 · 국제불교박람회 등 교류 확대

불교문화상품 개발과 템플스테이 확산에 주력하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중화권에 한국불교문화를 알리는 데 박차를 가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성효)은 10월 13~23일 중국 항주 · 상해 · 무석, 대만 등을 방문해 각종 문화원 · 여행사 등과 비즈니스 미팅을 하고, 한국전통 · 불교문화 등을 중심으로 한 성지순례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주제는 '33관음성지 및 중화권 마케팅'이다.

문화사업단은 이 기간 동안 중국국제차문화협회를 방문하고, 서호문화박람회에 참가해 부스를 운영하며 여행사 설명회를 개최한다. 한국전통 · 불교문화와 성지순례의 올바른 루트를 제공하는 한편,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여행사와 단체 등에게 팸투어 비용을 지급해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상해에서는 '상해선연문화발전유한공사'와 MOU를 체결해 양국 관광발전을 취지로 적극적인 대화에 나선다. 아울러 상해한국문화원, 세종학당, 불광산사에도 템플스테이 · 사찰음식 · 성지순례 등을 알릴 예정이다.

20~24일에는 하문국제컨벤션센터서 열리는 제11회 중국하문국제불교박람회에 참가한다. 이 박람회는 일평균 5만 명이 다녀가는 대규모 행사로 총 6000여개의 홍보부스가 운영된다. 이곳

13~23일 중국 · 대만 방문
문화원 · 여행사 미팅 갖고
양국 관광발전 방안 논의
쇼핑 탈피한 관광에 중점

에서 문화사업단은 '한국전통 · 불교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주제로 불교문화 관광콘텐츠를 홍보한다.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42수 관세음보살'이 지니고 있는 지물을 활용한 디자인 콘텐츠를 부스에 전시하고, 템플스테이 문화적 가치와 사찰음식 정신을 소개한다. 또한 불교문화상품 전문브랜드 본디나 상품을 통해 한국불교문화유산의 아름다움도 전하고, 인경체험, 설문조사 참가자 기념품 제공 등의 기회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같은 해외마케팅은 문화사업단이 지난 7월 대규모 인사단행과 함께 조직을 개편하면서 마케팅팀을 독립시켜 주체적인 사업전략을 마련한 첫 사례다. 지난 2008년에는 한국관광공사와 '한국33관음성지순례'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문화사업단에 따르면 이번 중화권 마케팅은 현지서 일정 수요가 있다는 소식에 관련 연구조사를 실시해 준비했다.

문화사업단 관계자는 "중국 내에서 쇼핑을 탈피해 한국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는 의미 있는 관광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몇몇 중국단체들은 한국에 오면서 임의로 성지순례 코스를 구상해오기도 했다. 관련 패키지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져 상품 개발에 힘 쏟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국관광객 대상의 저가 패키지 상품과 쇼핑관광을 탈피하고, 성지순례 사업 발전과 사찰체험 프로그램을 잘 녹여내 한 · 중 관광교류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왕실 인연, 도봉산서 재현" 서울 도봉산자락 마지막 무문관 도량인 천축사(주지 함결)가 10월 9일 '천년의 염원'을 주제로 2016행원산신대재를 봉행했다. 석가탑을 ½크기로 축소 제작한 '석담석가탑'을 선보인 산신대재는 왕실행차 재현을 비롯해 어울림마당, 사진촬영대회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열렸다. **윤호섭 기자**

군장병 · 사관생도, 불교교리대회 '만점'

제8회 나란다축제 수상자 발표

제8회 나란다축제서 군장병과 사관생도 부문 만점 수상자가 배출됐다.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은 10월 12일 제8회 나란다축제 수상자를 발표했다.

먼저 군장병 부문서는 6군단 불이사 소속 최인혁 상병과 8군단 호국 충용사 소속 안재근 일병이 만점을 받아 공동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사관생도 부문서는 국군간호사관학교 4학년 노유진 생도가 만점을 받았다.

군장병 대상 수상자에게는 조계종 총무원장상과 포상휴가, 장학금 각 100만원이 지원되며 해당 부대에 수상 장병 이름으로 포상금이 전달된다. 사관생도 역시 조계종 총무원장상과 장학금 200만원이 주어진다.

중 · 고등부문은 대구 능인중학교 3학년 안재민 학생과 동국대 사범대학부속 영석고 2학년 김광석 학생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별상의 경우 문화재지킴이 활동, 환경지킴이, 자원봉사 활동 등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심사기준에 부합한 청담고 3학년 유현정 학생과 하슬라중 2학년 최윤영 학생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10월 22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열린다. 아울러 제15회 은정장학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된다. **윤호섭 기자**

'맨발' 탄자니아 아이들에 헌 신발 선물해요

아름다운동행, 10월 8일 '헌 신발 보내기 캠페인'

흙바닥을 맨발로 걸으며 학교를 다니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해 온정의 손길들이 모였다.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10월 8일 종로 보신각서 '제3회 108 DAY' 행사를 진행하고, 탄자니아 빈곤 아동들을 위한 '초등학생 헌 신발 보내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는 지난 9월 탄자니아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 개교 당시 현지 아동들의 열악한 환경을 목격,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박찬정 사무국장은 "보리가람 학교를 설립하면서 맨발로 생활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1년에 단 하루라도 주변 소외된 이웃을 생각해보자는 '108 DAY' 행사 취지에 맞게 탄자니아 아이들을 위해 신발을 모았다. 다음해 4월 30일까지 모은 신발을 '부처님 오신날'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서 신발을 기부한 곽영기(조계사 법우모임 '풍경우' 총무 · 53) 씨는 "신발 보내기 캠페인을 진작 알았다면 신발을 더 모아 왔을텐데 전달이 늦어 아쉽다. 당장은 가족들이 신지 않는 깨끗한 신발들을 가져왔다"며 "특별한 도움을 주겠단 생각보다 먼저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동참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선 이웃을 향한 나눔의 마음을 다짐하는 '릴레이 108배'도 열렸다. 릴레이 108배 프로그램선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아름다운동행 지원단, 풍경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조계사 청년회, 가족단, 포교사단 서울지역단 등 150여 명이 사전 접수를 통해 참여했다.

108배 참가자 장현성(57) 씨는 "조계사 다도반서 활동하며 매달 108배와 보시를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108 DAY' 행사장서 절하려 한다. 행사전 '헌 신발 보내기 캠페인'에 대해 듣고 주변 아파트 수거함에 전단지를 붙여 신발을 모았다"며 "나눔과 보시행에 거리와 인종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2시간 동안 맨발로 걸어 학교를 다닌다는 아이들이 행복하기만 하면 그걸로 만족한다"고 전했다.



아름다운동행은 10월 8일 종로 보신각서 탄자니아 빈곤 아동들을 위한 '초등학생 헌 신발 보내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윤기중 조계종 포교사단장은 "'오늘 행사에 참여해 기쁘고 동참한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 서울지역단뿐만 아니라 전국적 규모로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들은 시민들에게 해당 캠페인을 홍보하는 전단지와 포춘쿠키를 배포했다. 현장선 대학생 버스킹 공연 및 아름다운동행 사진전도 진행돼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한편 신발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2017년 4월 30일까지 아름다운동행(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1길 22 다연2층) 사무실로 이름, 주소, 연락처, 성별, 신발사이즈(초등학생용 160㎜~260㎜)를 표기해 보내주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dreaminus.org/)나 전화(02-737-9595)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희 수습기자**

치료비 없어 간이식 못 받는 공양주 보살

생명나눔 11월 치료비 지원환자 김명심 씨

두 아들이 간이식을 해드리겠다고 나섰음에도 불구, 치료비가 없어 수술 받지 못한 말기 간경화 환자의 소식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 11월 치료비 지원환자로 선정된 김명심(50 · 사진) 씨다.

김명심 씨는 2015년 7월 간경화 판정을 받기 전부터 몸에 이상이 생긴 것을 알았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뒤늦게 치료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병환이 깊어 현재는 생체 간이식이 유일한 치료법이다.

생명나눔은 "김명심 씨는 상원사, 범계사, 보문사, 용궁사 등 여러 사찰서 공양간 보살님으로 4년 가까이 봉사했을 정도로 부처님 말씀을 가까이 실천했다. 또한 남편과 자녀들에게도 매우 헌신적이어서 가족과 매우 친밀했다"며 "이러한 김 씨가 말기 간경화 진단을



받자 두 아들은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간을 이식해드리겠다고 나섰지만, 3000만원이 넘는 수술비에 가족들은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이라 설명했다. 또한 생명나눔은 "수술이 잘 돼 건강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다시 예전처럼 절에서 봉사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여생을 감사히 살 것"이란 김 씨의 말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정성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 부디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후원문의 (02)734-8050/온라인 후원 www.lisa.or.kr/ 후원계좌 농협 053-01-243778(생명나눔) **박아름 기자**

활안 · 호암스님의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 강의

경덕전등록은 송나라의 도원(道源)이 1006년에 저술했으며, 총 30권에 이른다. 과거칠불(過去七佛)로부터 역대 선종의 조사들, 오가(五家) 52세(世)에 이르기까지 법등(法燈)을 전한 법계(法系)를 차례로 기록한 책이다.

■ 강 사 : 활안스님(금강선원 총재)
호암스님(전 불교통신대학원장 / 내원사 주지)
■ 일 시 : 2016년 10월 17일(월)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 4시까지
■ 동참비 : 월 50,000원
■ 장 소 : (사)한국불교금강선원
(전화 02-969-2410 / 969-4981)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43가길 6(청량리동)

※ 통신반 모집 : 지방에서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강의를 녹음하여 CD로 제작하여 보내드립니다.

부안, 아름다운 삶의 공동체
'우리 절, 우리 마을, 삶의 고향'
2016년
내소사 산사음악회
출연 정태춘, 박은옥, 빅맨싱어즈(팝페라그룹), 앙상블 92.5Mhz, 음악나무(통키타 연주팀)
2016. 10. 29(토) 오후 2시
능가산 내소사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내소사 후원 | 부안군
TEL | 063)583-3035 www.naesosa.org